

## 청소년의 외모관리 태도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윤수익\* · 위은하\*\*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A Study on the Effects of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 in School Adjustment for Adolescents

Yoon, Su-ik\* · Wee, Eun-hah\*\*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plann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help teachers guide lookism-prone students in their home and school life, and to guide them in the unit relating to clothing in school curriculums. To carry out this experiment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481 students in their first and second year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Gwangju city. The questionnaires are composed of 3 themes; 'general matters', 'attitudes about and recognition of appearance management' and 'school adaptatio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Component analysis(Varimax rotation) and Cronbach's  $\alpha$ , T-test, one-way ANOVA, Duncan-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WIN 14.0(K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ore they managed their behavior relating to appearance and cleanliness, the better they felt their friendships. 2. The less they concentrated management relating to appearance, the better they felt about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teachers. 3. The less they concentrated management relating to appearance but the more they managed cleanliness the easier they adjusted to school rules. 4. The less they pursued a trendy appearance but the more they managed cleanliness, the better they studied.

**Key words:** 외모관리(Appearance Management),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청소년(Adolescent).

1) 교신저자: Wee, Eun-hah, 77 Yongbong-r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city 500-757,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3, Fax: 062-530-2529, E-mail: weh@jnu.ac.kr

## I. 서 론

오늘날 대중매체의 발달로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 능력이나 도덕성, 인성 보다 잘생기고, 멋지면 모든 것이 통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까봐 우려스럽다.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로 인해 신체와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또래집단과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어느 시기보다도 옷차림과 머리모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직 사물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집착은 자칫 외모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적절한 외모관리와 인식은 청소년기 학생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여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기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로, 자신의 이미지의 대인 표출정도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기도 한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정선철·송미현, 2004),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한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과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한다(천팔만, 2001). 하지만 반대의 경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실망감이나 외모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접어든 학생들이 외모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오늘날 청소년들은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학교생활은 사회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즉, 교우, 교사, 학교 규율, 학습과의 관계는 학교생활뿐 아니라 사회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있어 외모는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이다. 또한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되어지

는 것에 대한 욕구의 표현이며 학교생활의 적응을 돋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외모관리관련 연구에는 신체이미지와 관련한 연구(송경자, 2009; 위은하, 2006; 이아영, 2007), 신체만족도와 관련한 연구(김수경·한동조, 2008; 김아날리아·이수경·고애란, 2006; 신현옥, 2008; 이종순, 2008), 사회문화적 자기개념과 관련한 연구(김선희, 2003; 박은하·김현정·서현숙, 2009; 안나영, 2007; 황윤정, 2007) 등이 있다. 그리고 외모와 학교 적응과의 관련연구에는 외모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련한 연구(서윤경, 2003; 장선철·송미현, 2004),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김은경, 2004; 이언숙, 2007) 등이 있지만 청소년의 외모관리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사회적 환경 및 분위기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시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외모 관리와 학교 적응을 연구하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외모관리 태도와 관련된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먼저 외모를 관리하는 태도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태도와 학교적응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외모관리 태도요인이 학교적응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청소년의 외모관리 태도의 구성요인을 파악한다.
2. 청소년의 배경변인(성별, 학교급, 성적)에 따른 외모관리 태도와 학교 적응 차이를 알아본다.
3. 청소년의 외모 관리 태도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의 외모관리 태도

외모관리는 자신의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의복,

헤어, 피부, 성형 등에 관심을 갖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외모관리 태도는 외모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라고 하겠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외모관련 행동은 실질적이기보다는 감각 지향적이라고(이은희, 2003)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패션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지 않아 유행경향을 여과 없이 모방하여 받았을 가능성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과시소비와 브랜드 제품 선호현상도 이러한 교우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명희(2001)도 청소년들은 상점에 가기 전부터 구입할 상표를 마음에 정하고 가는 경향이 높다고 했는데, 이러한 현상도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으로 외모의 표현을 동년배 집단에 수용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청소년기 학생들은 또래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느끼는 것들이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들은 아름다운 의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고석주·정진경, 1992). 또한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남녀 청소년들은 또래집단과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한다(이미숙, 2009).

청소년들의 외모관리 태도의 형성에는 TV, 인터넷, 휴대폰 등의 대중매체와 통신기기의 영향이 크며, 연예인의 화장을 모방하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이명희, 2003). 그리고 청소년들은 비교적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신체상으로 선호하면서 자신이 실제보다 둥뚱하다고 왜곡하여 지각하는 경향을 보인다(Jacobi, Cash, 1994). 또한 청소년들은 아름다움의 기준을 다양하게 생각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 한다. 예를 들면 키가 작으면 작은대로, 피부가 검으면 검은 대로 매력이 있는 범인데, 무조건 키는 커야하고, 피부는 희어야 된다는 인식은 우리 사회가 폭넓은 수용과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실로 볼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확대, 외모나 신체의 상품화 현상과 더불어 성형산업, 사회전반의 다이어트 열풍, 몸짱 신드롬이 청소년들에게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부추기고 있다(여성가족부, 2008. 1. 7).

Musa와 Roach(1973)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이 동년배 집단

과 유사하거나 우월한 외모를 지니고 있다고 여긴 여학생들의 자아개념 점수가 월등히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자신의 체격에 대해 비판적이고 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체중, 체형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한다고 하였다. 이는 여학생들이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남학생보다 외모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남, 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자명(1993)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외모 만족도가 남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이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기대가 높아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남학생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체형과 외모에 대한 본인의 인식과 실제와의 불일치는 청소년의 성장과 2차 성징의 발달에 저해를 불러오는 상황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왜곡된 외모인식과 체중감량, 다이어트 등의 행동은 아름다운 외모가 여성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신체적인 모습이 한 개인의 대인 감정을 결정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현정숙, 2007).

따라서 청소년들이 신체와 관련한 인식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많은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중매체의 홍보와 가정 및 사회에서 양성평등 교육 및 자신의 신체를 바르게 알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식 함양 고취를 위한 학교 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 2. 청소년의 학교 적응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학교 적응은 학습자로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이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욕구를 학교 내의 현실적 가능성에 맞추어 대처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김세영, 1999).

교육학 사전(대한 교육연합회, 1992)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크게 가정, 학교, 사회로 나누고, 그 중 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적 영향을 통틀어 학교생활이라고 하였다. 학교 생활 속에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학생 상호간의 관계가 있고, 학교 내 규칙 등도 학교생활을 구성한다. 따라서 학교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 활동 등에서 자기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

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 관계가 잘 조화되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주현정(1998)은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은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의 모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학교 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 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학업성적이 좋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안영복, 1984). 하지만 반대로 청소년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 성장발달 단계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교 교육을 긍정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올바른 사회화 과정을 습득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다양한 종류의 사회 부적응 문제를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윤계순, 2000).

오늘날 학교는 청소년들이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써 생활범위가 확대되는 장소이다. 교사와 친구 사이에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는 사회관계의 장이 뿐 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의 습득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학교생활의 모든 면은 청소년에게 중요하며 앞으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홍성옥(1996)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녀의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없다고 하고, 성별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예승(2003)은 성적과 관련하여서 상위권 학생일수록 학교 적응이 좋았다고 하였으며,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집단이 학업에 대한 자아 개념이 긍정적이어서 학업에 있어서 우월감, 자신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가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친구 상호간의 적응이 학교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박미연(1992)은 학교 환경 내에서의 적응 즉, 학교 내 규율준수와 관련하여서는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교우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일과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이 시기 교우 관계의 손상여

부는 성인기로 확장된 이후의 사회관계에서 적응 또는 부적응을 보이게 될 수 있다(Asher, 1990). 즉,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인 학급 내에서 친구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수용의 정도는 사회 및 정서발달에 기본이 되며, 대인관계의 원만함과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김기형, 2006). 이시기의 또래관계는 그들의 사회성, 건전한 정서 발달, 자아개념 형성의 중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즉, 청소년에게 학교 내 교우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학생들에게 보람과 희망을 심어주고, 학교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며, 불안을 감소시켜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성취감도 높이게 해준다. 특히, 교육에서는 인격의 역동적인 교감이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교사는 대개 의식적이며 의도적으로 행동하지만, 학생은 대부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동조감응을 통한 교감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사와 학생간의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중요한 이유이며,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윤기영·이미숙, 2000).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믿는 관계가 이루어 질 때 교육은 성공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인성교육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학생이 교사의 인격이나 지적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학생의 잠재 가능성과 교육에 의한 이성의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없다. 또한 학생 내면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서로 간 신뢰의 바탕에서 일치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 규율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집단생활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훈련 활동과 훈련에 적용되는 명시적, 암시적 규칙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가정적, 교육적, 직업적, 정서적 문제 등 전반적인 생활을 포함하는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학생 자신의 성장을 돋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생활 지도와는 개념이 다르다(연문화·권이종, 1988).

학습 적응은 학습과제를 접하면서 거치는 여러 심리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 태도들 가운데 ‘불안하다’, ‘재미있다’, ‘해 볼만 하다’, ‘열심히 해야겠다’ 등의 태도를 Bloom(1956)은 정

의적 투입특성(affective entry characteristics)이라 하였다. 학습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특성이 학습과제를 수행하고 학업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전경진, 2007).

Spencer(1999)는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의 다차원적 요구에 대한 교육적 적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적응이 필요하며, 추미애, 박아청(2006)은 학교생활은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들 자신이 자기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보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며, 학교 적응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교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변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관계 변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교우관계 적응, 교사관계 적응, 학습적응, 학교규율 적응으로 나누고, 외모관리의 태도가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광주 지역의 고등학교 2개교, 중

학교 2개교에서 남, 여 중·고등학생으로 하였으며,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 조사를 토대로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500부를 배부하여, 부실 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481부를 최종 조사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배경특성은 <표 1>과 같았다.

#### 2. 조사 도구

질문지의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은 홍지연(2002), 윤소영(2007)의 외모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는 문항과 김은주(2001)의 연구를 참조하여 총 24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대답하도록 질문지를 제작하여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8로 나타났다.

학교 적응에 대해 묻는 문항은 천팔만(2001)이 제작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교우 관계 4문항, 교사와의 관계 4문항, 학습 적응 4문항, 학교 규율 4문항 총 16문항으로 제작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배경특성 특성

변인		구분	N(%)
성별	중학교	남학생	66(18.5)
		여학생	298(81.5)
	고등학교 (인문계)	남학생	51(41.8)
		여학생	71(58.2)
성적		상위	29( 6.0)
		중상위	126(26.2)
		중위	150(31.2)
		중하위	125(26.0)
		하위	51(10.6)

### 3. 자료 분석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외모관리 태도와 학교 적응에 대한 관계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PC WIN 14.0 프로그램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청소년의 외모관리 태도의 구성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요인분석(Varimax 회전)을 실행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배경특성(성별, 학교급, 성적)에 따른 외모관리 태도와 학교 적응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행하고 사후검색으로 Duncan-test를 실행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외모 관리 태도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 분석, 중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청소년의 외모관리 태도의 구성요인

청소년들의 외모관리 태도의 구성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총 24문항 대하여 요인분석(Varimax 회전)을 실시한 결과, 3개 문항을 제외한 21개 문항에서 <표 2>와 같이 고유치(eigenvalue) 1.0 이상인 5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나는 규정을 어겨서라도 헤어스타일을 내 마음에

<표 2> 외모관리 태도에 관한 요인 분석

요인 및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요인1 스타일 추구	나는 규정을 어겨서라도 헤어스타일을 내 마음에 들게 한다.	.76
	나는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대부분의 옷이나 용품을 가지고 있다.	.64
	나는 값이 비싸더라도 더 예쁜 교복을 입을 것이다.	.63
	나는 차림새가 좋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	.56
	나는 공부를 잘 하는 것보다 외모가 돋보이길 원한다.	.54
		고유치=.2.52, 설명변량=12.0%, 신뢰도 계수=.73
요인2 외모 관리 경험	나는 책상 앞에 늘 거울을 둔다.	.74
	나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가끔 사용한다.	.63
	나는 학교에서 머리손질을 3번 이상 한다.	.58
	나는 피부 관리를 위해 기초화장(스킨, 로션)을 바른다.	.56
	나는 외모를 돋보이기 위해 성형이나 수정을 한 적이 있다. (눈썹수정 및 절 빼는 것 등)	.52
		고유치=.2.49, 설명변량=11.8%, 신뢰도 계수=.69
요인3 외모 불만	나는 여드름난 내 얼굴을 보면 화가 난다.	.73
	나는 피부 좋은 친구들을 보면 많이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73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다.	.61
	나는 성형을 통해 외모를 바꿀 마음이 있다.	.50
		고유치=.2.29, 설명변량=10.9%, 신뢰도 계수=.68
요인4 체중 관리	나는 살을 뺄기 위해 날마다 운동을 하고 있다.	.83
	나는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살찌는 것은 먹지 않는다.	.83
	나는 건강을 위해서보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60
	나는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이 많다.	.56
		고유치=.2.21, 설명변량=10.5%, 신뢰도 계수=.74
요인5 청결 관리	나는 손과 발은 늘 청결함을 유지한다.	.79
	나는 교복을 항상 깔끔하게 관리한다.	.72
	나는 하루에 세수를 3번 이상 한다.	.56
		고유치=.1.85, 설명변량=8.8%, 신뢰도 계수=.55
총 설명변량= 54.1%, 신뢰도 계수= .68		

\* 역접수처리문항

들게 한다.', '나는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대부분의 옷이나 용품을 가지고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외모 관리경험으로 보여지는 외모에 대한 스타일을 설정하고자 하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스타일 추구"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나는 책상 앞에 늘 거울을 둔다.', '나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가끔 사용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기본적인 외모에 대한 관리 행동을 나타내므로 "외모관리 경험"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나는 여드름난 내 얼굴을 보면 화가 난다.', '나는 피부 좋은 친구들을 보면 많이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등으로 구성되어 외모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므로 "외모불만"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나는 살을 빼기 위해 날마다 운동을 하고 있다.', '나는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살찌는 것은 먹지 않는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이어트와 관련하여 몸매의 유지에 대한 사고를 나타내므로 "체중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나는 손과 발은 늘 청결함을 유지한다.', '나는 교복을 항상 깔끔하게 관리한다.' 등으로 구성되며, 일상생활에서 유지 할 수 있는 외모에 대한 청결을 나타내므로 "청결관리"로 명명하였다. 전체요인이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54.1%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8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은주(2001)는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관리

행동을 묻는 문항으로 성형수술, 체중조절, 피부관리, 화장의 4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흥지연(2002)은 남녀 중학생의 외모관리경험을 체중조절, 의복행동, 성형수술로 나누고 있다. 이명희(2009)는 외모관심을 성형관심, 체중관심, 의복관심, 혜어관심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보다 태도에 초점을 두어 스타일추구, 외모관리경험, 외모불만, 체중 관리, 청결관리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내적성향과 관련하여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청소년의 배경특성에 따른 외모관리 태도와 학교 적응

### 1) 청소년의 배경특성에 따른 외모관리 태도의 차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청소년들의 배경특성에 따른 외모관리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과 남학생은 '스타일 추구( $p<.05$ )', '외모관리 경험( $p<.001$ )', '외모불만( $p<.001$ )', '체중 관리( $p<.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스타일 추구, 외모관리경험, 외모불만, 체중 관리의 측면에서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즉,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피부관리를 더 자주 하며 화장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성

<표 3> 청소년의 배경특성에 따른 외모관리 태도의 차이

변인	구분	스타일 추구		외모관리경험		외모불만		체중 관리		청결관리	
		M(SD)	D	M(SD)	D	M(SD)	D	M(SD)	D	M(SD)	D
성별	남학생	2.63(.85)		1.85(.63)		2.5(.86)		2.01(.79)		3.54(.77)	
	여학생	2.79(.71)		2.45(.79)		3.08(.87)		2.26(.76)		3.55(.71)	
	t	-2.05*		-8.54***		-6.32***		-3.11**		-.06	
학교 급	중학교	2.75(.79)		2.27(.82)		2.85(.91)		2.20(.80)		3.58(.74)	
	고등학교	2.72(.63)		2.41(.74)		3.21(.84)		2.21(.69)		3.44(.67)	
	t	.44		-1.75		-4.00***		-.20		1.96	
성적	하위	2.87(.72)	A	2.49(.95)	B	2.98(.89)		2.28(.72)		3.21(.63)	A
	중하위	2.84(.82)	A	2.45(.85)	B	3.01(.96)		2.28(.75)		3.57(.70)	BC
	중위	2.62(.68)	A	2.21(.72)	AB	2.90(.82)		2.11(.79)		3.59(.70)	BC
	중상위	2.81(.76)	A	2.28(.77)	B	2.99(.95)		2.21(.77)		3.65(.73)	C
	상위	2.59(.76)	A	1.98(.66)	A	2.66(.94)		2.02(.86)		3.34(.91)	AB
	F	2.42*		3.48**		1.11		1.41		4.22**	

\* p<.05 \*\* p<.01 \*\*\* p<.001

형을 했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중관리를 위해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외모관리 태도의 차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는다는 이명희(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신현옥(2008), 김아널리아, 이수경 등(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외모관리경험에 성별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인 된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는 Cash(1990)와 같이 신체 매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은 성(性)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는데, 여성이 신체적 느낌 및 변화에 좀 더 민감하다는 것과 상통하는 결과이다.

학교급에서는 중·고등학생의 ‘외모불만’의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 $p<.001$ )를 보였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모불만이 더 높았다. 즉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여드름피부에 대한 관심이 많고 피부가 좋은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성형을 통해 외모를 바꿀 마음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에 대한 감정이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더 높다는 결과는 임수진(2002)의 외모관리 인식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민감하고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성적은 ‘스타일추구( $p<.05$ )’, ‘외모관리경험( $p<.01$ )’, ‘청결관리( $p<.01$ )’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적이 ‘하위’ 또는 ‘중하위’ 학생들은 중상·상위의 학생에 비해 ‘스타일 추구’와 ‘외모관리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권 학생

이 ‘청결관리’를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희(2009)는 학업성적이 체중관심과 외모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성적이 좋을수록 체중관심은 낮고 외모만족도는 높다고 하였다. 또 체중관심과 외모만족도는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체중관심이 높은 학생들은 외모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이미숙(2000)은 체중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유행, 의복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이 중상이나 상위권 학생에 비해 스타일을 추구하고 외모관리 경험에 높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 2) 청소년의 배경특성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

다음으로 배경특성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교사와의 관계( $p<.05$ )’, ‘학습 적응( $p<.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홍성옥(1996)은 남녀의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따라서 성별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손미혜(2008)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 교수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의 하위 요인별 학교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표 4〉 청소년의 배경 변인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

변인	구분	N	교우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규율		학습 적응	
			M(SD)	D	M(SD)	D	M(SD)	D	M(SD)	D
성별	남학생	114	2.86(.65)		2.91(.74)		2.87(.65)		2.94(.71)	
	여학생	363	2.90(.48)		2.73(.74)		2.76(.67)		2.75(.65)	
	t		-.581		2.257*		1.387		2.648**	
학교 급	중학교	354	2.87(.54)		2.85(.75)		2.86(.64)		2.83(.68)	
	고등학교	122	2.92(.48)		2.52(.67)		2.55(.66)		2.69(.62)	
	t		-.980		4.303***		4.554***		1.976*	
성적	하위	50	2.81(.63)		2.54(.78)	A	2.74(.78)		2.35(.62)	A
	중하위	124	2.86(.60)		2.76(.76)	AB	2.73(.70)		2.67(.62)	B
	중위	146	2.88(.46)		2.70(.67)	AB	2.76(.63)		2.79(.63)	BC
	중상위	124	2.96(.48)		2.84(.73)	B	2.84(.62)		3.00(.65)	C
	상위	29	2.89(.53)		3.17(.85)	C	2.98(.62)		3.22(.74)	D
	F		.988		4.025**		1.197		13.841***	

\* p<.05 \*\* p<.01 \*\*\* p<.001

〈표 5〉 외모관리 태도와 학교 적응의 상관관계

외모관리 태도	학교적응	교우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규율	학습 적응
스타일 추구	.190***	-.195***	-.167***	-.185***	
외모관리경험	.211***	-.064	-.112*	-.162***	
외모불만	.078	-.273***	-.262***	-.205***	
체중관리	.166***	-.005	-.070	-.085	
청결관리	.198***	.157***	.114*	.248***	

\* p&lt; .05, \*\* p&lt; .01, \*\*\* p&lt; .001

학교급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교사와의 관계(p<.001)’, ‘학교 규율(p<.001)’, ‘학습 적응(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학교 규율, 학습 적응이 고등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학교 규율, 학습 적응에 비해 훨씬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더 적극적으로 학교 적응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박미연(1992)은 학교 환경 내에서의 적응 즉, 학교 내 규율준수와 관련하여서는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성적면에서는 ‘교사와의 관계(p<.01)’, ‘학습 적응(p<.001)’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적이 좋은 집단일 때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학습 적응이 더 잘됨을 알 수 있다. 이 예승(2003)도 성적과 관련하여서 상위권 학생일수록 학교 적응이 좋았다고 하였으며,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집단이 학업에 대한 자아 개념이 긍정적이어서 학업에 있어서 우월감, 자신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가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 3. 청소년의 외모관리 태도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외모관리 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고 유의한 변수를 중심으로 종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상관분석을 한 후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요인이 학교 적응에 유의한 상관을 갖는 변인을 중심으로 회귀식을 구성하고, 회귀 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계수와 D-W(Durbin Watson)계수를 조사하였다. VIF계수는 1.614~1.031에 머물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D-W계수도 1.685~2.029로 2에 가까워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가정은 만족스럽

〈표 6〉 외모관리 태도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VIF	R <sup>2</sup>	F-value	D-W
교우 관계	외모관리경험	.081	.122*	1.484	.086	11.134***	1.821
	청결관리	.124	.170***	1.031			
교사와의 관계	스타일 추구	-.121	-.122*	1.329	.108	19.143***	1.685
	외모불만	-.174	-.212***	1.299			
	청결관리	.174	.170***	1.037			
학교 규율	외모불만	-.164	-.224***	1.382	.085	10.996***	1.804
	청결관리	.109	.119**	1.047			
학습 적응	스타일 추구	-.121	-.135*	1.614	.127	17.219***	2.029
	청결관리	.257	.278***	1.047			

\* p&lt;.05 \*\* p&lt;.01 \*\*\* p&lt;.001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외모관리 태도가 학교 적응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보기 위해 표준화된 베타(Beta) 값을 비교하였다.

<표 6>에서 볼 때 교우 관계에는 청결관리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다음으로 외모관리경험이 영향을 미쳤으며 두변인의 설명력은 8.6%였다. 즉 손과 발, 교복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교우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거울을 자주보고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성형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에는 외모불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스타일 추구와 청결관리가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세변인의 설명력은 10.8%였다. 즉, 여드름 피부에 과민하고 피부 좋은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성형을 통해 외모를 바꿀 마음을 갖을수록 교사와의 관계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행하는 옷을 가지고 있고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돋보이길 원하는 경우도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청결관리를 잘할수록 교사와의 관계는 좋았다.

학교 규율에는 외모불만이 가장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청결관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8.5%였다.

학습 적응에는 청결관리와 스타일 추구가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12.7%였다. 청결관리를 잘할수록 학습적응은 좋았고 스타일추구를 하는 경우 학습적응은 좋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외모에 대해 만족과 학교생활 적응 간에 유의한 차이를 설명한 김은경(2004), 이언숙(2007)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손, 발, 얼굴 등을 깨끗하게 씻고 교복을 깨끗하게 입는 등의 청결관리의 강조는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규율준수, 학습적응 등 모든 측면에서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것이다. 반면 여드름 등의 피부와 성형 등의 외모와 관련된 불만족한 감정에 집중하는 경우 학교적응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율준수 등의 적응에 방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울을 많이 보고 기초화장품, 헤어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교우관계는 도움이 되나 최신유행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멋진 외모에 집중하는 경우 학습적응에 방해가 될 것이다. 교우관계와 다른 학교적응 요인인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율준수, 학습적응과는 반비례적인 경향이 있

었으며 단지 청결관리의 경우에만 비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외모에 대한 태도가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학습 적응, 그리고 학교규율 준수, 학습적응과 같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학교생활 지도와 가정 교과의 의생활 영역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종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외모관리 태도의 구성요인은 스타일 추구, 외모관리경험, 외모불만, 체중관리, 청결관리의 5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배경변인에 따른 외모관리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스타일 추구, 외모관리경험, 외모불만, 체중관리의 측면에서 더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학교급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모불만이 더 높았다. 성적이 ‘하위’ 또는 ‘중하위’ 학생들은 중상·상위의학생에 비해 ‘스타일 추구’와 ‘외모관리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권 학생이 ‘청결관리’를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하위권 이하인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외모불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경특성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서 중학생이 교사와의 관계, 학교 규율, 학습 적응면에서 고등학생에 비해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면에서는 성적이 상위 집단일 때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학습 적응이 더 잘됨을 알 수 있었다. 배경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는 교우관계적응이 다른 학교적응요인과 대치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성적이 중하위권인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교사와의 관계와 학습적응에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하며 개선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청소년의 외모관리 태도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결관리를 잘할수록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규율준수, 학습적응 등 모든 측면의 학교생활 적응이 좋았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불만감에 집중하는 경우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율준수 등의 학교적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 경험이 교우관계에는 도움이 되나 최신유행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멋진 외모에 집중하는 경우 학습적응에는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결관리가 모든 학교 적응면에서 긍정적이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외모불만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스타일추구와 외모관리 경험은 교우관계에는 긍정적이나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율, 학습적응 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모든 측면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청결관리를 강조하는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우 관계의 적응을 위해서는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스타일 추구나 외모관리경험을 허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교 규율 적응을 위해서는 외모불만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청결관리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학습적응을 위해서는 청결관리를 강조하되 최신 유행을 따르며 교복을 변형하는 등의 스타일추구를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적이 중·하위권 이하인 여자 고등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율 적응과 학습적응을 위해서는 스타일추구나 외모불만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고석주·정진경·조혜정(1992). 외모와 억압. *한국여성학*, 8(1), 33-75.
- 구자명(1993). 사춘기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성취동기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형(2006).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족관계, 교우 관계, 학교적응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
- 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200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 20대 여성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41(5), 99-108.
- 김세영(1999). MBTI의 성격유형과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경·한동조(2008). 남녀 고등학생들의 신체만족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양상분석·피부관리,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11(4), 39-44.
- 김아날리아·이수경·고예란(2006). 남녀 프리틴 세대의 외모 관리행동 영향요인 -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30(11), 1538-1549.
- 김은경(2004). 아동의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부적응간의 관계. *춘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2001). 여대생의 외모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교육연합회(1992). *교육학사전*. 서울: 교육학 사전 편찬위원회.
- 박미연(1992).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아·김현정·서현숙(2009). 문화적 자기개념(self-construals)에 따른 외모중시 가치관과 외모관리행동. *한국심리학회지*, 10(2), 251-274.
- 서윤경(2003). 청소년의 외모 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숙명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미혜(2007). 고등학생의 외모에 대한 태도와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자(2009). 지각적 신체이미지, 외모관리행동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3(10), 1611-1621.
- 신현옥(2008). 남녀 중학생의 외모에 대한 관심, 외모콤플렉스 신체만족도가 외모관리경험 및 외모관리비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나영(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태도와 객체화된

-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복(1984). 적응 및 부적응행동의 특성과 관계 변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 가족부(2008.1.7). 외모중심 인재채용 개선을 위한 연구.
- 연문화·권이종(1988). 초·중등학교 생활 지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4(2), 1-39.
- 윤계순(2000). 해결중심 단기모델을 적용한 학교부적응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기영·이미숙(2000). 예비교사를 위한 '교사의 인간관계'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18, 1-22.
- 윤소영(2007). 여대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의식 태도 연구 : 해어, 피부, 화장,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은하(2006). 남·여 중학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 비교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3), 119-131.
- 이명희(200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과 의생활 문화, 가정문화 운동 십포지엄: 디지털시대와 가정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연구, 33-47
- 이명희(2003).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9), 1101-1111.
- 이명희(2009). 청소년의 외모관심, 외모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연구. *복식*, 59(8), 97-109.
- 이미숙(2000).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8.
- 이미숙(2009).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3), 433-443.
- 이아영(2007). 청소년의 외모콤플렉스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언숙(2007). 초등학생의 외모만족과 성인 자기효능감 학교 적응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예승(2003). 청소년의 학교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여자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2003).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2(2), 237-250.
- 이종순(2008). 신체만족도에 따른 청소년들의 외모관리 양상 분석 -의복, 피부관리, 몸매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14(2), 384-395.
- 임수진(2002).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자아개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진(2007).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에 따른 성취압력과 학업 성취의 관계. 성신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철·송미현(2004). 고등학생의 외모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 11(3), 115-133.
-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필만(2001). 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미애·박아청(2006).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 15(2), 271-288.
- 현정숙(2007).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숙(1996). 아동의 성역할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지연(2002). 남녀중학생의 외모 만족도와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윤정(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자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sher, S. R.(1990).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om, B. S.(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 Handbook I, Cognitive Domain*, New York : Davide McKay.
- Cash, T. F.(1990). *The psychology of physical appearance*.

- appearance: Aesthetics, attitudes, and images. In T. F Cash & T. Pruzinsky(Eds.). *Body Image: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pp. 51-71) NY:Guilford Press.
- Jacobi, L., Cash, T. F.(1994). In pursuit of the perfect apperance: Discrepancies among self-ideal percept of multiple physical attribut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5), 379-396.
- Musa, K. E., and Roach, M. E.(1973). Adolescence appearance and self-concept. *Adolescence*, 8, 385-396.
- Jacobi, L., Cash, T. F.(1994). In pursuit of the perfect apperance: Discrepancies among self-ideal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외모에 대한 태도의 정도가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학습 적응 정도, 그리고 교 칙준수와 같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학교생활 지도와 가정 교과의 의생활 영역의 기 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남, 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81부를 최 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PC WIN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통계, t-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test,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 ), 요인분석(Varimax 회전), Pearson의 상관 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청결관리를 강조하여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우 관계의 적응을 위해서는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스타일 추구나 외모관리경험을 허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교 규율 적응을 위해서는 외모불만을 조절하고 청결관리를 강조하며 학습적응을 위해서는 청결관리를 강조하되 최신 유행을 따르며 교복을 변형하는 등의 스타일추구를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적이 중하위권 이하인 여자 고등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율 적응과 학습적응을 위해서는 스타일추구나 외모관리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